

1. 공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선택, 예술

오늘날 일본에서 ‘아트 작품’이라고 불리는 것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반드시 예술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들은 공간을 꾸미기 위한 인테리어 요소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트를 감상하거나 수집하는 대상이라기보다 공간을 더 편안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트를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가치를 축적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즉 아트 컬렉터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화로서의 예술을 지속시키는 것은 바로 이 소수의 시선입니다.

대중이 느끼는 ‘아름다움’과 컬렉터가 발견하는 ‘가치’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작가의 정체성, 작품이 놓인 맥락, 시대성, 비평성 같은 요소들이 작품의 본질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시각적 인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필요한 것은 아트를 장식으로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과 사유가 축적된 문화적 자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 변화가 건축과 도시 공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사람의 경험을 만들고,
경험은 결국
도시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시설이나 디자인이 아니라
그 공간이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의미를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예술입니다.

좋은 예술은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넘어
그 장소의 정체성을 만들고,
도시의 기억을 형성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축적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즉, 예술은
공간의 '장식'이 아니라
공간의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와 건축이 만들어 가야 할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시간이 쌓여 가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술이 있을 때,
그 공간은 비로소
도시의 미래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